한국농어촌공사

보 도 자 료

Press Release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총무인사처 총무부 김순도부장(061-338-6041) / 제공일: 2021. 4. 23 (총 2매)

농어촌공사,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

○ 격월로 금요장터 열어 지역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

○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플랫폼 개설 지원하고 물품구매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23일 비대면 금요장터를 열고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.

○ 공사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*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던 금요장터를 개최해 지금까지 4백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약 2천 여 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.

○ 이에 공사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을 주문을 받아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외에 택배 배송방식을 추가해 금요장터를 격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.

* 광주 가치키움 사회적 협동조합, 전남상사 사회적 협동조합

□ 또한, 지난해 5월에는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플랫폼(모이세)을 구축을 지원했다.

○ 공공구매 플랫폼, 모이세를 통해 전국 부서 계약담당자들이 등록된 업체 11곳에서 1천2백 여 만원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.

□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부 권장 구매율* 또한 2018년 3.74%에서 지난해는 5.14%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.

* 정부권장 구매율 : 3.1%

공사 구매 실적 : (18년) 3.74%→(19년) 4.36%→(20년) 5.14%

□ 김인식 사장은 “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, 구매와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